

내년부터 학생부 학부모정보 삭제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권고안 확정 시민참여단, 수상경력 기재 가이드라인 합의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학부모 인적사항을 적을 수 없게 된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돼온 수상경력 기재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취합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수저', '깜빡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1호 안건으로 결정하고, 시민참여단 100명의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 100명 중 97명은 8일 투표표를 통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

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투표함을 열어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이 각 쟁점에 대해 투표한 결과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합의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매우 찬성' 또는 '찬성' 의견 뿐 아니라 찬성하진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도 '합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R&E)활동 등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앞서 제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보다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안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우선 시민참여단은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안중 쟁점이었던 수상경력 항목 폐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시안으로 제시한 '수상경력 항목 삭제'안이 아닌 '현행대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에 합의했다. 투표인원의 80.4%가 '매우 찬성'

하거나 '찬성' 또는 '양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창체)에 포함됐던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기재 금지하는 안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민참여단의 79.4%가 '매우 찬성'이나 '찬성' 또는 '양해'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소논문(R&E)활동의 경우 '모든 교과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83.5%)했다. 앞서 교육부가 소논문 활동을 정규수업 중에 지도한 경우에만 적을 수 있게 한 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 합의(79.4%)했다. 또 봉사활동은 '교내, 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체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의 안이 아닌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에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창체 항목의 특기사항 글자수를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여 교사들의 기재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중·고교 독서활동 상황 기재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축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육부는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공개했다.

현행대로 독서활동 상황을 기재할 때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지만 입력하는 안의 경우 찬성(33.0%)보다 반대(42.3%)의견이 더 많았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을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47.4%)의견이 반대(36.1%)보다 많았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외국인 급증... 한국인 유학은 감소

통계청, 내국인 출국 30만3000명 전년대비 3.5% ↓ 일반연수 자격 외국인 3만명 전년대비 17.8% ↑

한류 문화가 전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인의 경우 조기유학 감소 등으로 출국이 꾸준히 줄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연수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5000명)나 증가했다.

일반연수는 한국어연수와 외국어연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연수와 별도로 유학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학연수는 한류의 영향으로 봤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교육부에서 전략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 것과 한류 열풍으로 인해 유학비자가 늘었다"며 "유학이 1000명, 일반연

수가 6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유학은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등에서 많이 늘었고, 일반연수는 한류의 영향으로 베트남에서만 5000명 가량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국인의 출국은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학연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은 30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조기유학 등으로 출국 유인이 있는 10대와 20대 출국도 각각 1.8%, 3.3%씩 줄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내국인 출국이 감소한 이유를 보면, 주 출국 연령이 30대 이하인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30대 이하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면서 "조기유학이나 해외유학은 2007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대 6.13 지선 당선 동문, 후배와 소통 시간 가져

당선자·유력 동문·총학생회 임원 등 100여명 참석... 후배들과 청년층 고민 나눔 멘토링

전주대는 지난 11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들을 초청하여 축하하고 후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슈퍼스타를 키우는 전주대학교 출신 지방선거 당선자,

유력 동문, 총학생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당선 동문들은 모교의 눈부신 발전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후배 대학생들의 고민인 일자리·결혼 문제 등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며 청년

들이 꿈꾸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와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길 당부하며, 후배들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동문들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주대 동문 당선자들은 "후배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니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어디에서든지 전주대인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주대는 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비롯한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27명 등 총 40명을 배출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는 지난 11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들을 초청하여 축하하고 후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환 교육감 3기 출범준비위 정책간담회

'김승환 교육감 3기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차상철)'는 제18대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안) 수립에 앞서 12~13일, 이들 간 도내 각 시군을 찾아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정책간담회는 18대 교육감의 새로운 공약과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약사항 실천계획(안)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 및 출범준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출범준비위는 3팀으로 나뉘어 12일 오전에는 전주·익산·장수, 오후에는 순창·군산·무주에서 각각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공약 청취 및 현안사항을 파악했다. 오늘 오전에는 김제·임실·원주, 오후에는 부안·남원·정읍에서 각각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출범준비위는 그 동안에도 특수교육 관계자,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여러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정책간담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출준위 관계자는 "정책간담회는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의 현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의 목소리는 충분히 논의한 뒤 공약 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황근 고창고 교장, 교육장 임용 예정

이황근 고창고등학교 교장이 2018년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임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황근 교장을 교육장 임용예정자로 확정짓는 교육장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황근 교장은 올해 만 58세로 전남

대학교를 졸업하고 흥덕중과 구림중 교감을 거쳐 동계고 교장을 지냈다.

교육장 임용 예정자의 임지는 전북도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